

# 전기차 폐배터리도 재활용이 가능하다? 순환자원 규제 완화 총정리!



“

전기차 폐배터리, 순환자원으로 규제 완화! 무엇이 바뀌었을까?



정부는 지난 5일, 경제규제 혁신 TF 회의에서 플라스틱 열분해 및 폐배터리 산업을 중심으로 한 순환경제 활성화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특히 전기차 폐배터리 산업을 활성화하기로 했는데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먼저, 자원 순환기본법 개정을 통해 순환자원 선 인정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어요. 이는 각종 폐기물 규제를 면제해 주기로 한 것인데요, 해당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의 기간 동안에는 폐기물 규제 면제가 용이하도록 현행 사업장 단위 신청에 따른 순환자원 인정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해요!

또한 자동차 관리법을 개정해 전기차 등록 시 배터리를 별도로 등록하게끔 하고, 배터리 전 주기 이력을 공공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해 통합 운영하는 방안과 배터리 전류·전압·온도 등을 측정해 잔여량을 제어하는 내부 제어시스템 정보를 공유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해당 방안들을 통해 더욱 체계적으로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과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폐배터리 재사용을 위해 제조 원료부터 바꾼다! 활성화 방안은?



유럽연합(EU)은 환경보호를 위해 2030년부터 배터리 제조 시 일정 비율 재생 원료 사용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우리 정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우리나라 또한 인증받은 배터리 환경 성적 표지에 재생 원료 사용률을 포함하는 등의 인증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해요.

이 방안을 활성화하기 위해 재생 원료를 사용한 배터리나 폐배터리를 재활용한 제품을 공공 조달 시 우수 재활용제품(GR) 인증 대상 포함을 추진한다고 해요. 이를 통해 배터리의 원료부터 재사용할 수 있도록 바꾸고, 이것을 적용한 것은 우대하는 것이죠!

또한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업계 차원의 사용 후 배터리 통합 관리체계와 지원방안 초안을 마련하기 위해 하반기 내 업계가 중심인 '배터리 얼라이언스'를 조직하기로 했고, 정부안은 업계안을 바탕으로 별도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플라스틱 열분해 산업도 함께 활성화! 감면과 지원금 계획까지 알아보아요



전기차 폐배터리 산업과 더불어 플라스틱 열분해 산업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위해 석유화학제품의 원료인 '나프타'를 만드는 과정에서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재활용 유형'에 추가할 것으로 보여요. 또한 열분해유 제조 시설과 열분해 소각시설을 분리해 제조 시설은 재활용 시설로 간소화하여 더욱 편하게 재활용할 수 있도록 도울 것으로 보입니다.



열분해와 같이 화학적으로 재활용된 플라스틱 제품 제조·수입업자에게도 내년부터 폐기물 분담금을 감면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플라스틱 열분해 재활용 지원금을 높이고 고품질 페플라ستيك이 확보되도록 지원금 구조를 개편하고, 화학적 재활용 방식도 녹색 분류체계에 반영할 수 있는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해요. 녹색 분류체계에 포함되면 국가가 인정하는 녹색투자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아울러 재활용 플라스틱 제품에 재생 원료 사용 비율 표시를 허용하고 지방자치단체 등이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는 등의 노력도 있었답니다!

오늘 푸루와 함께 알아본 전기차 폐배터리의 순환자원 규제와 플라스틱 열분해 산업 활성화 방안 잘 확인하셨나요? 푸루와 함께 앞으로 전개될 방안들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갖기로 해요! 우리 모두 함께해요~ 환경사랑!